

## 상호협조적-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의 매개효과\*

손 영 미<sup>1)</sup>

박 정 열<sup>†</sup>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끈끈한 유대감(부자유친성정)과 권위적 효의식을 지지하는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독립적 부모자녀관계가 어떠한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을 거칠 때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생 5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병렬다중매개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자유친성정은 보완합치와 조정합치과정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정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위적 효의식은 진로정체감에는 부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보완합치와 조정합치과정을 매개하면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자녀관계는 보완합치와 조정합치과정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정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침입성은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직접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사합치과정은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와 독립적 부모자녀관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지 않았으며, 진로정체감과는 부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문화보편적 특성과 문화특수적 특성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부모자녀관계, 진로정체감,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 보완합치, 유사합치, 조정합치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분석하여 정리한 것임.

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46

Tel : 070-7012-2214, E-mail : cypark@assist.ac.kr

아동은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문화적 가치와 행동, 습관 등을 사회화하게 된다.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동일시된 자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진로 정체감은 발달하게 된다(Erikson, 1956). 진로 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이란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일관성있고, 연속성있는 직업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통합된 지각으로(Erikson, 1956), 자신의 직업적 흥미, 능력, 목표, 가치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진로에 대한 그림이다(Holland, 1985). 진로정체감은 정체감의 핵심영역에 해당한다. 많은 연구들은 진로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김주석, 2019; 양진희, 김봉환, 2008), 성숙한 진로결정 및 직업적 성과를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은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고(Kroger, 2007; Skorikov & Vondracek, 2011), 성인의 과제(직업을 갖고, 시민이 되고, 결혼을 계획하는 것 등)를 수행해 나가는 심리적 토대가 된다(Erikson, 1956). 이런 이유로 청소년 및 초기 성인기 대학생들이 건강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오래전부터 진로상담의 주요 주제가 되어왔다(Erikson, 1959).

전통적인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진로정체감의 형성 과정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separation)하고 독립하여 자율성(autonomy)을 획득해가는 개별화(individuation)의 과정으로 여겨왔다(Scabini & Manzi, 2011). 이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부모와는 ‘구별되는’, ‘고유하고 독특한’ 내적인 특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를 형성하며(Erikson, 1956; Kroger & Marcia, 2011), 독립된 개체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맥락이나 주변과는 관계없이 일

관된 행동을 보일수록 성숙한 것으로 간주한다(English & Chen, 2007; Suh, 2002).

그러나 이 같은 자기(self)의 발달과정은 개인주의 문화적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인의 자기가 갖는 ‘관계적-맥락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장주, 최상진, 2003; 최상진, 김기범, 1999). 예를 들어,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반영하는 부자유친성정과 효는 한국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감정적으로 상호 관여하며, 희생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기 보다는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이장주, 최상진, 2003).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부모와 자녀의 이 같은 상호작용은 미분화 및 미성숙의 특성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 연결되어 정서적 유대감을 교류하는 한국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의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sup>1)</sup>. 또한 개인주의 문화의 가치로 주되게 언급되고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자녀관계가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틀로 이분해서 보는 것의 한계

1) Markus와 Kitayama(1991)는 개인이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타인의 영향력 정도와 경계성 정도를 기준으로 ‘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개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개념을 차용하여 부모와 자녀간에 자기의 경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정체감의 형성에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적 특성을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부모 자녀간에 독립성과 자율성, 분리개별화를 강조하는 관계적 특성을 ‘독립적 부모자녀관계’라고 명명하였다.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진로와 관련한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와 관련한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의 개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첫째는 부모의 진로 지지, 간섭, 무관여 정도에 따른 자녀의 진로발달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가 지지하는 것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이라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Dietrich & Kracke, 2009; Guan et al., 2015; Restubog et al., 2010). 둘째는 부모의 진로지지를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언어적 지지 등으로 유형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더 긍정적인지를 살펴보고 있다(Turner, Alliman-Brissett, Lapan, Udipi, & Ergun, 2003). 여기서 ‘부모의 지지’는 자녀가 독립적 자기를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보완적,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녀의 진로에 개입함으로써 자녀의 자아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가 담겨있다(Hargrove, Creagh, & Burgess, 2002; Zingaro, 1983). 그러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는 정서적 교류와 상호 반응성을 통해 상호 조율(attunement)하고 조화(harmony)를 이루는 적극적인 과정이 포함된다. 특히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족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욕구와 가족의 욕구 간에 협상을 한다(Fouad et al., 2008). 따라서 부모자녀간 ‘독립’ 아니면 ‘함몰/흡수’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 부모와 자녀가 진로와 관련하여 상호협조적으로 합치를 이루는 적극적인 재구성의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구동향으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진로발달에 관한 비교문화연구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문화권 조사대상자의 경우,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더욱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ouad et al., 2008; Leung, Hon, Gati, & Li, 2011; Sawitri, Creed, & Zimmer-Gembeck, 2014; Shea, Ma, & Yeh, 2007; Tang, Fouad, & Smith, 1999). 주목할 점은 이들 연구가 대체적으로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유의하게 미치는 이러한 양상을 부모의 기대나 피드백에 자녀가 부응하고, 맞추며 복종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Leong & Serafica,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갖는 기대와 바람, 헌신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되고 만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거나 부모의 기대만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상호작용과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갖는 부모의 기대와 생각들을 고려하여 부모와 상호협조적으로 진로를 합치해나가는 과정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후자의 과정을 고려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한계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을 3가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바,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보조·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보완합치과정)과 진로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자녀가 그대로 따르는 것(유사합치과정), 부모와 자녀가 진로에 관한 기대나 생각, 관심을 상호작용하면서 모두 진로와 관

런한 상호협조적 자기를 재구성해나가는 것(조정합치과정)이 그것이다. 이것은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부자유친성정, 효)와 독립적 부모자녀관계(독립성, 자율성),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은 진로정체감과 어떤 관계성을 가질 것인가?

**연구문제 2.**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보완합치과정, 유사합치과정, 조정합치과정의 매개효과는 어떠한 것인가?

**연구문제 3.** 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보완합치과정, 유사합치과정, 조정합치과정의 매개효과는 어떠한 것인가?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와 독립적 부모자녀관계

본 연구는 한국의 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감과 교류양식으로 언급되는 부자유친성정과 효,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아발달의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자녀관계가 한국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Markus와 Kytayama(1991)의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상호협조적 자기(interdependent self)’ 이론을 토대로, 전자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로, 후자를 독립적 부모자녀관계로 명명하였다.

먼저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로, 부자유친성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으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됨, 일체감(oneness)을 느끼는 것(이장주, 2002)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자기가 상대방의 자기에 중요한 부분이 되며, 개인의 자기는 주요 타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확대되고, 정서적으로 끈끈한 특성을 갖는다(엄은주, 박보경, 도현심, Nishiwaki, 2014). 이것은 서로를 좋아하고 가깝게 여기는 응집력이나 친밀감의 마음보다는 서로에 대해 더 잘 해주지 못해서 혹은 더 잘 보답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마음에 가깝다(방희정, 2000). 이 같은 부모자녀관계 양상은 서구의 분리개별화 및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 간 경계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밀착·융합되어 있는 역기능적인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가 한국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이장주, 2002), 자아분화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최인재, 2005)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효(孝, filial piety)가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 등은 효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였는데, 부모가 희생과 헌신,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자녀에게 보내면 자녀는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느끼며 고맙고 죄송스러워하면서 부모의 기대에 보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부모는 대리적인 성취감을 느껴 다시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희생적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부모의 헌신과 학업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지

나치게 자녀를 간섭하고 통제하며 정서적인 부담을 주는 양육태도로, 자녀가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관계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부모의 현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최인재, 2005; Kim & Choi, 2001). 이는 독일대학생들과 달리 중국대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간섭보다 관여부족이 진로와 더 높은 부정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Dietrich & Kracke, 2009; Guan et al., 2015).

독립적 부모자녀관계 특성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방식을 꼽을 수 있다(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먼저 독립성의 경우, 서구적 의미에서 성장과 자기계발은 개인이 남들과 구별된 고유한 내적인 자기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내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자기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독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기확인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타인과 자기가 독립되어 있다는 자아감을 갖는 양육방식을 지향하며, 실제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진행된 진로분야의 연구들은 부모자녀 간 심리적 독립과 경계의 명료성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간섭과 침입성은 진로발달을 저해한다는 결과를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Dietrich & Kracke, 2009; Fan et al., 2014; Manzi, Vignoles, Regalia, & Scabini, 2006). 그러나 심리적 독립과 진로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김수임, 김창대, 2009). 예를 들어, 부모의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 및 직업탐색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며(박현주, 김봉환, 2006;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진로준비행동 역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임수진, 2015). 이는 독립성이 한국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 중 하나로(Deci & Ryan, 2000),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자율성은 문화보편적인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임이 밝혀지고 있다(Chen, Boucher, & Kraus, 2011). 그동안 자율성은 독립성과 뗄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비교문화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반면 상호협조적 자기(interdependent self)를 관계적이고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해왔다. 즉, 타인과의 관계성이 자율성을 감소시키며, 타인과의 분리가 자율성의 발달에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분리개념화의 관점을 견지해왔다(Meeus, Jedema, Maassen, & Engels, 2005; Minuchin, 1974). 그러나 Beyers, Goossens, Vansant와 Moors(2003), Kagitcibasi(1996, 2013)는 자율성의 개념 속에 독립성과 관련된 거리둠/분리(detachment/separation) 개념과 자율성과 관련된 주체성(agency)의 개념이 서로 혼합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과 주체성은 서로 다른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었다. 예를 들어, Manzi, Regalia, Soenens, Fincham과 Scabini(2011)의 연구에서 가족의 독립성 촉진과 가족분리와 같은 독립성 변인이 가장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속하는 미국과 벨기에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반면 자발성은 미국, 벨기에, 중국, 이탈리아 조사대상자 모두의 정신건강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Scabini &

Manzi, 2011, 재인용). Yeh와 Yang(2006)도 자율성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심리적 건강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율성이 집단주의 문화 청소년에게도 주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율성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을 의미있게 설명하며(김은영, 2007),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 결정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안미경, 유금란, 2013). 이상의 결과는 자율성이 한국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

부모가 자녀의 진로목표와 포부에 동의할 때 진로발달이 더 긍정적이며, 부모와 자녀 간에 진로방향에 차이가 있을 때 자녀의 진로발달은 방해를 받는다(Sawitri, Creed, & Zimmer-Gembeck, 2013).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이란 부모와 자녀가 자녀의 진로에 합치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진로와 관련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녀가 독립적 자기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보완적,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녀의 진로에 개입함으로써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Hargrove, Creagh, & Burgess, 2002; Zingaro, 1983). 그러나 그동안 부모와 자녀가 진로와 관련하여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협상하여 상호협조적인 자기를 함께 재구성해나가는 적극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Cross, Bacon, & Morris, 2000).

이에 본 연구는 부모-자녀상호작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Sawitri 등(2013)의 부모자녀진로합치이론, 상호협조성과 관련한 Kâğıtçıbaşı(1993, 2013)의 이론, 그리고 상호협조적 자기의 양상을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한 Kim(1994) 등 여러 비교문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부모와 자녀가 진로합치를 이루는 과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보완합치과정(congruence by complementary process)으로,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요구를 수용하며, 자녀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해줌으로서 진로합치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모의 지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 같은 보완적 합치과정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지가 학업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Restubog et al., 2010), 높은 수준의 진로지지는 진로탐색,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현주, 2010; Guan et al., 2015). 진로와 관련한 부모의 지지행동을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지지로 구분한 이상희(2009)의 연구는 정서적지지가 한국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효능감 등에 가장 유의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유사합치과정(congruence by supplementary process)으로, 자녀가 부모의 진로관심, 계획, 목표, 가치와 유사하여 적극적인 재구성의 과정없이 합치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Erikson(1956)에 의하면, 어린 아이는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초기 미성숙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그의 관점으로 볼 때, 유사합치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부모와의 진로유사성이 재구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지위 유형 중 하나인 탐색없이 진로에 몰입하는 유실지위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메타분석결과, 유실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부통제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Lillevoll, Kroger, & Martinussen, 2013), 다른 지위에 비해 권위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Ryeng, Kroger, & Martinussen, 2013), 주요 타자(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사합치과정은 진로정체감과 부적인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을 매개하는 효과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유형은 조정합치과정(congruence by attunement process)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을 알고, 이해하며, 부모의 의견을 ‘자신의 결정에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삼아’ 고려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진로흥미, 목표, 가치, 계획 등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을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욕구나 기대, 바램 등을 조정해나감으로써 진로합치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기가 타인에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독립적으로 남과 다른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Erikson의 ‘자기재구성(self-reconstruction)’과도 구별된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재구성(interdependent-reconstruction)’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Kâğıtçıbaşı(1996, 2013)<sup>2)</sup>가 제안한

‘자율성이 높고, 관계성도 높은 자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는 자율적-관계적 자기(autonomous-relational self)가 부모와 심리적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그 기반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실제 몇몇 연구들은 한국이 이러한 특성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은영(2007)은 자율성이 한국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을 의미있게 설명하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안미경, 유금란, 2013).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2002)의 연구도 한국인에게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관계적 측면과 자기절제의 자율성 측면이 함께 높은 것이 어른 혹은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방법 및 절차

### 자료 수집 및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4년제 대학의 재학생으로, 전체 조사대상자는 530명이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21명의 자료를 제외한 509명의 응답결과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온라인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6, 2013)는 관계성과 반대되는 개념인 독립성은 자율성과 다른 차원임을 지적하면서, ‘자율성-타율성’과 ‘독립성-관계성 차원’을 기준으로 한 4가지 유형의 자기를 제안하였다. 전통적인 비교 문화관점에서 독립적 자기는 자율성이 높고 독립성이 높은 자기이며, 상호협조적 자기는 관계성이 높고, 타율성이 높은 자기를 의미한다.

2) 자율성과 관계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문화연구에서는 이를 마치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다루어왔다. 그러나 Kâğıtçıbaşı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 구분  | 빈도  | 백분율    | 평균(표준편차)    |
|------|-----|-----|--------|-------------|
| 성별   | 남   | 206 | 40.47% |             |
|      | 여   | 303 | 59.53% |             |
| 학년   | 1학년 | 55  | 10.8%  |             |
|      | 2학년 | 111 | 21.8%  |             |
|      | 3학년 | 147 | 28.9%  |             |
|      | 4학년 | 196 | 38.5%  |             |
| 가구소득 | 상   | 73  | 14.34% |             |
|      | 중   | 317 | 62.28% |             |
|      | 하   | 119 | 23.38% |             |
| 연령   |     |     |        | 22.37(2.01) |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206명(40.5%), 여학생 303명(59.5%)이었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29세에 걸쳐있으며, 평균 22.37세이었다. 학년별로 1학년이 전체 대상자의 55명(10.8%)이었으며, 2학년 111명(21.8%), 3학년 147명(28.9%), 4학년 197명(38.5%)이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1학년의 자료가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비율로 수집되었다. 가구소득은 상(上) 73명(14.34%), 중(中) 317명(62.28%), 하(下) 119명(23.38%)이었다.

####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협조적-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진로합치과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종속변인: 진로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하였고, 김봉환(1997)이 한국어로 번안한 진로정체감 척도(My Vocational Situation)를 사용하였다. 김봉환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응답방식대로 예, 아니오로 응답하고, 이를 합산하여 진로정체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대해 명확하며, 진로정체감의 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72이었다.

#### 독립변인: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이상주(2002)가 개발한 부자유친성정척도와 Yeh 등(2013)의 단축형 이중 효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자유친성정척도는 부모자녀일체감과 헌신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부모님은 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존중해준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어머니는 좋은 것이 생기시면 나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신다’, ‘내가 만약 위험

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할 것이다' 등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도를 묻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정서적 일체감이 높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각 .940과 .938이었다.

효 척도는 최초 Yeh와 Bedford(2003)가 개발한 척도(Dual Filial Piety Scale, DFPS)를 Yeh, Yi, Tsao와 Wan(2013)이 6문항으로 축약한 단축형 이중 효 척도(Short-term Dual Filial Piety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기 동안 부모와 자녀의 수평적인 친밀감을 기반으로 형성된 효를 의미하는 친애적 효의식(reciprocal filial piety)과 역할과 규범을 따르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로서의 부모자녀관계를 반영하는 권위적 효의식(authoritarian filial piety)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위계적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권위적 효의식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개인적인 관심사를 포기해야 한다' 등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6점)'의 6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신뢰도는 .675이었다.

#### 독립변인: 독립적 부모자녀관계

기존 연구들은 독립적 부모자녀관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Heine et al., 1999; Markus & Kitayama, 1991; Scabini & Manzi, 2011). Manzi, Regalia, Pelucchi와 Fincham(2012)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Silk, Morris, Kanaya와

Steinberg(2003)의 자율성 부여 척도(Autonomy Granting Scale) 중 자율적 사고를 촉진하는 양육방식을 측정하는 6문항과 Grolnick, Ryan과 Deci(1997)의 부모양육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 중 자율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양육방식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Manzi 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자율적 사고촉진의 신뢰도는 .788이었으며, 자율적 의사결정 촉진은 .922이었다.

부모자녀 간 독립성을 측정하기 위해 Gavazzi, Reese와 Sabatelli(1998)가 개발한 가족침입성 척도(Family Intrusiv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가족체계 경계선의 밀착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나에게 내가 책임감 있는 가족구성원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가족들은 내가 나의 삶을 꾸리는 방식에 대해 비판한다' 등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가족 간 경계선이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으며, 가족 간 거리가 매우 가깝고, 가족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에 개입하려는 빈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정된다. 가족침입성은 .915의 신뢰도를 보였다.

#### 매개변인: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

부모자녀 간에 진로목표와 관심, 계획, 가치를 상호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Sawitri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진로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 상

호작용을 1) 부모가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보조해줌으로써 진로합치를 이루는 보완합치과정, 2) 부모와 자녀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 가치 등이 상호유사한 유사합치과정, 3)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을 상호작용하고 이해하는 조정합치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보완합치와 유사합치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Sawitri 등(2013)이 개발한 청소년-부모 진로일치성 척도(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나의 부모님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진로영역을 탐색해보길 권장하신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진로계획을 지지한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진로흥미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준다’ 등과 같이 부모가 자녀의 진로요구를 지원해 줌으로써 자녀와의 진로조화를 이루는 것을 반영하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완합치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후자는 ‘나의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진로와 같은 진로를 원한다’, ‘나의 부모님과 나는 비슷한 진로흥미를 갖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세운 진로계획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세운 계획과 비슷하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며, 부모와 자녀가 이미 진로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진로갈등이 없는 경우를 반영하고 있어 ‘유사합치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합치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Yeh와 Yang (2006)이 개발한 청소년 자율성 척도(Adolescent Autonomy Scale)의 하위 요인 중 관계된 자율성(related autonomy)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6문항 중 ‘사람들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유교적 가치를 묻는 문항이라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표 문항으로는 ‘비록 나와 부모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나는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부모님의 제안을 고려했을 때 나의 결정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많이 일치한다(6점)’의 6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보완합치과정, 유사합치과정, 조정합치과정의 신뢰도는 각각 .867, .883, .822이었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3.5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았다. 모집단의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진로합치과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4번째 모형을 적용한 병렬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인이 다중(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 분석의 경우 부자유친성정과 권위적 효의식, 독립적 부모자녀관계의 분석의 경우 자율성과 가족침입성)인 관계로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 - 진로합치과정 - 진로정체감과의 분석에서는 부자유친성정을 독립변인으

로 투입한 경우에는 권위적 효의식을 통제변인(공변량)으로 처리하였으며, 권위적 효의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경우에는 부자유친성정을 통제변인(공변량)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인 진로결정감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에 대해서도 공변량으로 처리하였다.

## 결 과

###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연구변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권위적 효의식은 진로정체감( $r=.000$ ,

$p=.995$ )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침입성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213$ ,  $p<.001$ ). 그 외 모든 변인들은 진로정체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침입성은 권위적 효의식( $r=.118$ ,  $p<.01$ )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나머지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r=-.089\sim-.416$ )을 보였다. 가족침입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 $r=.164\sim.690$ )을 나타내 보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그 값들이 1.236~2.828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왜도(-.486~.424)와 첨도(-.886~1.280)는 절대값이 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집단의

표 2. 측정 변인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 부자유친<br>성정 | 권위적<br>효의식 | 자율성      | 가족<br>침입성 | 보완합치    | 유사합치    | 조정합치    | 진로<br>정체감 |
|---------|------------|------------|----------|-----------|---------|---------|---------|-----------|
| 부자유친성정  | -          |            |          |           |         |         |         |           |
| 권위적 효의식 | .173***    | -          |          |           |         |         |         |           |
| 자율성     | .670***    | .164**     | -        |           |         |         |         |           |
| 가족침입성   | -.416***   | .118**     | -.315*** | -         |         |         |         |           |
| 보완합치    | .555***    | .323***    | .579***  | -.249***  | -       |         |         |           |
| 유사합치    | .360***    | .365***    | .353***  | -.089*    | .690*** | -       |         |           |
| 조정합치    | .566***    | .273***    | .573***  | -.274***  | .612*** | .474*** | -       |           |
| 진로정체감   | .247***    | .000       | .237***  | -.213***  | .299*** | .184*** | .344*** | -         |
| 평균      | 3.820      | 3.113      | 3.503    | 3.255     | 3.887   | 3.574   | 4.038   | 1.389     |
| 표준편차    | .668       | 1.010      | .635     | 1.120     | .880    | 1.035   | .753    | .263      |
| 왜도      | -.486      | .246       | -.372    | .135      | -.218   | -.346   | -.315   | .424      |
| 첨도      | .644       | -.330      | .801     | -.385     | .864    | .244    | 1.280   | -.886     |

\*  $p<.05$ , \*\*  $p<.01$ , \*\*\*  $p<.001$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Kline, 2005).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부자유친성정 및 권위적 효의식)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진로합치과정(보완, 유사, 조정합치)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진로합치과정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부자유친성정과 권위적 효의식이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자유친성정( $\beta=.032$ ,  $SE=.021$ ,  $t=.604$ ,  $p=.546$ )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위적 효의식( $\beta=-.143$ ,  $SE=.013$ ,  $t=-2.993$ ,  $p<.01$ )은 진로정체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유친성정과 권위적 효의식이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보완합치, 유사합치, 조정합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부자유친성정은 보완합치( $\beta=.503$ ,  $SE=.047$ ,  $t=14.015$ ,  $p<.001$ ), 유사합치( $\beta=.295$ ,  $SE=.061$ ,  $t=7.436$ ,  $p<.001$ ), 조정합치( $\beta=.526$ ,  $SE=.041$ ,  $t=14.591$ ,  $p<.001$ )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적 효의식 역시 부자유친성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바, 보완합치( $\beta=.229$ ,  $SE=.034$ ,  $t=5.881$ ,  $p<.001$ ), 유사합치( $\beta=.299$ ,  $SE=.044$ ,  $t=6.951$ ,  $p<.001$ ), 조정합치( $\beta=.141$ ,  $SE=.029$ ,  $t=3.609$ ,  $p<.001$ )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변인(보완합치, 유사합치, 조정합치)이 종속변인(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결과, 보완합치( $\beta=.184$ ,  $SE=.020$ ,  $t=2.744$ ,  $p<.01$ )와 조정합치( $\beta=.254$ ,  $SE=.020$ ,  $t=4.491$ ,  $p<.001$ )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사합치( $\beta=-.041$ ,  $SE=.015$ ,  $t=-.697$ ,  $p=.486$ )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모형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10,000회의 편향조정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자유친성정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보완합치, 유사합치, 조정합치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총 간접효과는 .084이었으며, 95% 편향조정 신뢰구간(bias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059~.111)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 매개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확인해 본 결과, 부자유친성정이 보완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유친성정이 조정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 역시 조정합치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자유친성정이 유사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사합치의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자유친성정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완합치와 조정합치는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위적 효의식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보완합치, 유사합치, 조정합치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총 간접효과는 .017이었으며, 95% 편향조정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007~.028)에 0을 포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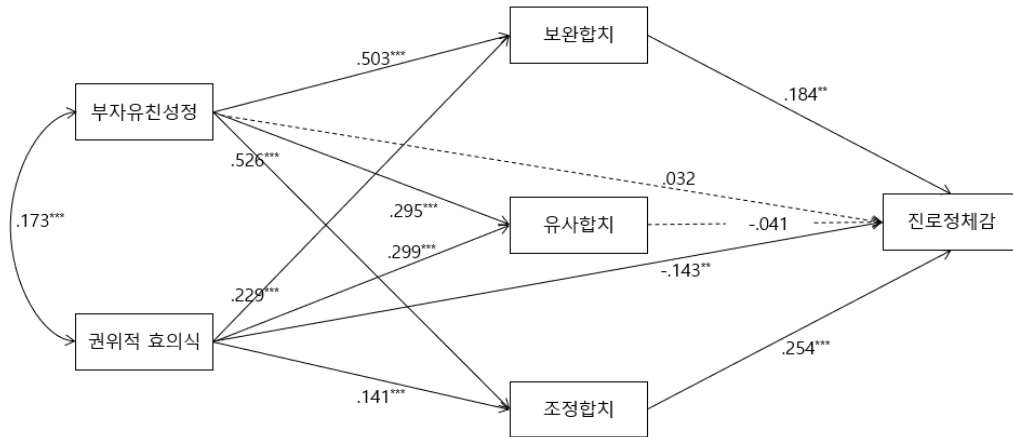
표 3.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 - 진로합치과정 - 진로정체감과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 직접효과                   | B      | SE      | $\beta$ | t           | LLCI     | ULCI     |
|------------------------|--------|---------|---------|-------------|----------|----------|
| 부자유친성정 → 진로정체감         | .013   | .021    | .032    | .604        | -.028    | .054     |
| 부자유친성정 → 보완합치          | .662   | .047    | .503    | 14.015***   | .569     | .755     |
| 부자유친성정 → 유사합치          | .457   | .061    | .295    | 7.436***    | .336     | .577     |
| 부자유친성정 → 조정합치          | .593   | .041    | .526    | 14.591***   | .513     | .673     |
| 권위적 효의식 → 진로정체감        | -.037  | .013    | -.143   | -2.993**    | -.062    | -.013    |
| 권위적 효의식 → 보완합치         | .199   | .034    | .229    | 5.881***    | .133     | .266     |
| 권위적 효의식 → 유사합치         | .306   | .044    | .299    | 6.951***    | .220     | .393     |
| 권위적 효의식 → 조정합치         | .105   | .029    | .141    | 3.609***    | .048     | .163     |
| 보완합치 → 진로정체감           | .055   | .020    | .184    | 2.744**     | .016     | .095     |
| 유사합치 → 진로정체감           | -.010  | .015    | -.041   | -.697       | -.040    | .019     |
| 조정합치 → 진로정체감           | .089   | .020    | .254    | 4.491***    | .050     | .128     |
| 간접효과                   | Effect | Boot SE |         |             | BootLLCI | BootULCI |
| 부자유친성정 총 간접효과          | .084   | .013    |         |             | .059     | .111     |
| 보완합치                   | .037   | .013    |         |             | .012     | .062     |
| 유사합치                   | -.005  | .007    |         |             | -.018    | .008     |
| 조정합치                   | .053   | .013    |         |             | .029     | .078     |
| 권위적 효의식 총 간접효과         | .017   | .005    |         |             | .007     | .028     |
| 보완합치                   | .011   | .004    |         |             | .003     | .020     |
| 유사합치                   | -.003  | .005    |         |             | -.013    | .006     |
| 조정합치                   | .009   | .003    |         |             | .003     | .017     |
| 총효과                    | B      | SE      | $\beta$ | t           | LLCI     | ULCI     |
| 부자유친성정 → 진로정체감(직접+간접)  | .097   | .017    | .246    | 5.636***    | .063     | .131     |
| 권위적 효의식 → 진로정체감(직접+간접) | -.020  | .012    | -.078   | -1.640 .102 | -.045    | .004     |

\*  $p < .05$ , \*\*  $p < .01$ , \*\*\*  $p < .001$

고 있지 않은 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권위적 효의식이 보완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적 효의식

이 조정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 역시 조정합치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위적 효의식이 유사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사합치의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 - 진로합치과정 - 진로정체감과의 직접효과

결국, 권위적 효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완합치와 조정합치는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립적 부모자녀관계(자율성 및 가족침입성)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진로합치과정(보완, 유사, 조정합치)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진로합치과정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자율성과 가족침입성이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성( $\beta = -.014$ ,  $SE = .023$ ,  $t = -.248$ ,  $p = .804$ )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침입성( $\beta = -.119$ ,  $SE = .011$ ,  $t = -2.664$ ,  $p < .01$ )은 진로정체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가족침입성이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보완합치, 유사합치, 조정합치에 미치는 직

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율성은 보완합치( $\beta = .535$ ,  $SE = .052$ ,  $t = 14.251$ ,  $p < .001$ ), 유사합치( $\beta = .337$ ,  $SE = .074$ ,  $t = 7.805$ ,  $p < .001$ ), 조정합치( $\beta = .517$ ,  $SE = .044$ ,  $t = 13.893$ ,  $p < .001$ )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침입성은 보완합치( $\beta = -.089$ ,  $SE = .030$ ,  $t = -2.345$ ,  $p < .05$ )와 조정합치( $\beta = -.129$ ,  $SE = .025$ ,  $t = -3.431$ ,  $p < .001$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합치( $\beta = .005$ ,  $SE = .040$ ,  $t = .122$ ,  $p = .903$ )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변인(보완합치, 유사합치, 조정합치)이 종속변인(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보완합치( $\beta = .160$ ,  $SE = .021$ ,  $t = 2.334$ ,  $p < .05$ )와 조정합치( $\beta = .236$ ,  $SE = .020$ ,  $t = 4.128$ ,  $p < .001$ )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사합치( $\beta = -.058$ ,  $SE = .015$ ,  $t = -.990$ ,  $p = .323$ )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보완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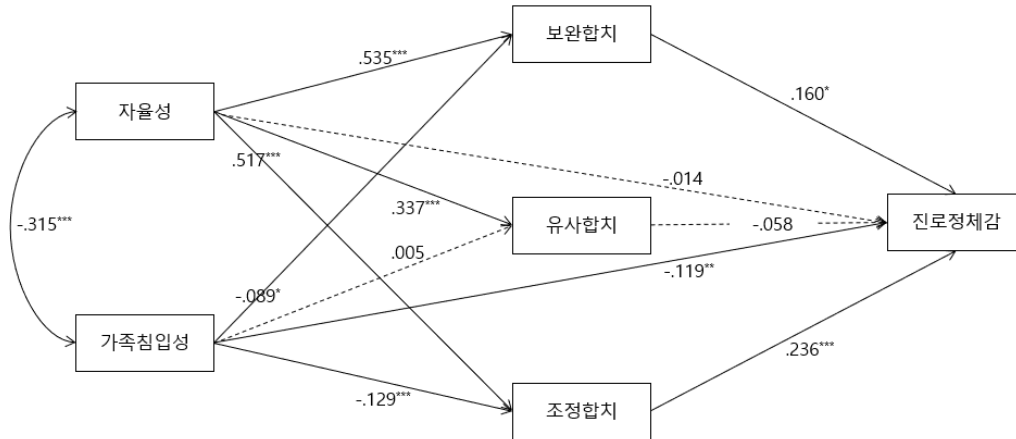
표 4. 독립적 부모자녀관계 - 진로합치과정 - 진로정체감과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 직접효과                 | B      | SE      | $\beta$ | t         | LLCI     | ULCI     |
|----------------------|--------|---------|---------|-----------|----------|----------|
| 자율성 → 진로정체감          | -.006  | .023    | -.014   | -.248     | -.051    | .039     |
| 자율성 → 보완합치           | .741   | .052    | .535    | 14.251*** | .639     | .843     |
| 자율성 → 유사합치           | .550   | .074    | .337    | 7.805***  | .411     | .688     |
| 자율성 → 조정합치           | .613   | .044    | .517    | 13.893*** | .526     | .670     |
| 가족침입성 → 진로정체감        | -.028  | .011    | -.119   | -2.664**  | -.049    | -.007    |
| 가족침입성 → 보완합치         | -.070  | .030    | -.089   | -2.345*   | -.128    | -.011    |
| 가족침입성 → 유사합치         | .005   | .040    | .005    | .122      | -.074    | .084     |
| 가족침입성 → 조정합치         | -.086  | .025    | -.129   | -3.431*** | -.136    | -.037    |
| 보완합치 → 진로정체감         | .048   | .021    | .160    | 2.334*    | .008     | .088     |
| 유사합치 → 진로정체감         | -.015  | .015    | -.058   | -.990     | -.044    | .014     |
| 조정합치 → 진로정체감         | .083   | .020    | .236    | 4.128***  | .043     | .122     |
| 간접효과                 | Effect | Boot SE |         |           | BootLLCI | BootULCI |
| 자율성 총 간접효과           | .078   | .017    |         |           | .047     | .114     |
| 보완합치                 | .036   | .015    |         |           | .007     | .066     |
| 유사합치                 | -.008  | .008    |         |           | -.025    | .007     |
| 조정합치                 | .051   | .014    |         |           | .024     | .080     |
| 가족침입성 총 간접효과         | -.011  | .004    |         |           | -.018    | -.004    |
| 보완합치                 | -.003  | .002    |         |           | -.008    | .000     |
| 유사합치                 | -.000  | .001    |         |           | -.002    | .002     |
| 조정합치                 | -.007  | .003    |         |           | -.014    | .002     |
| 총효과                  | B      | SE      | $\beta$ | t         | LLCI     | ULCI     |
| 자율성 → 진로정체감(직접+간접)   | .072   | .019    | .174    | 3.874***  | .036     | .109     |
| 가족침입성 → 진로정체감(직접+간접) | -.039  | .011    | -.164   | -3.622*** | -.060    | -.018    |

\*  $p < .05$ , \*\*  $p < .01$ , \*\*\*  $p < .001$

치, 유사합치, 조정합치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총 간접효과는 .078이었으며, 95% 편향조정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047~.114)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 요인별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자율성이 보완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조정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 역시 조정합치의 간접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독립적 부모자녀관계 - 진로합치과정 - 진로정체감과의 직접효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성이 유사합치를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사합치의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율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완합치와 조정합치는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침입성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보완합치, 유사합치, 조정합치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총 간접효과는 -.011이었으며, 95% 편향조정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018~-.004)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요인별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보완합치(-.008~.000), 유사합치(-.002~.002), 조정합치(-.014~.002) 모두에서 95% 편향조정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범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는 바,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상호협조적-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 간 관계에서 진로에 대한 부모자녀상호작용과정(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자유친성정은 한국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정적인 상관을 가졌다. 그러나 수직적 부모자녀관계를 담고 있는 권위적 효의식은 진로발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주의 문화권의 주요 가치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의 경우, 한국 대학생들에게도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자녀관계가 진로발달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가족침입성은 진로발달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자녀간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반영하는 부자유친성정이 한국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의 형성과 정적인 상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침입적인 부모자녀관계가 한국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

부적 상관을 가지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 자녀관계가 이들의 진로정체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독립성과 자율성은 문화보편적 특성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보완합치과정, 유사합치과정, 조정합치과정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자유친성정은 보완합치와 조정합치과정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정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자녀간 정서적 일체감을 측정하고 있는 부자유친성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부모자녀관계 특성이다. 이것은 서구의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분리개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융합과 미분화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부모자녀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부자유친성정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며(보완합치과정),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진로관심, 목표, 가치, 계획 등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을 상호작용하며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위적 효의식은 진로정체감에는 부적인 직접효과를 미치지만 보완합치와 조정합치과정을 매개하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위적 효의식은 역할과 규범을 따르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로서의 부모자녀관계(Yeh et al., 2013) 특성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위계적 부모자녀관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는 이러한 수직적 부모자녀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아버지가 강아지보다 더 서열이 낮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했던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 아내와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되고 있으며, 집에 오면 신문만 보고,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은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캠핑을 가는 등 가족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아버지들 자신도 권위적인 아버지보다는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가정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김영철, 양진희, 2014). 본 연구결과는 권위적 부모자녀관계가 한국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계적 부모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진로와 관련해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거나 부모자녀 간에 진로와 관련한 상호의 생각과 관심, 목표 등을 함께 구성하는 상호작용 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보완합치과정, 유사합치과정, 조정합치과정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관계는 보완합치와 조정합치과정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정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율성을 지지하는 관계일수록 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지·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진로에 대한 관심과 목표, 가치, 계획 등을 상호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의 발달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 중 하나이다(Deci & Ryan, 2000). Kâğıtçıbaşı(1996, 2013)는 기존 연구에서의 자율성 개념에는 독립성과 주체성의 개념이 혼재되어있다고 하였

다. 그는 이 두 개념이 구분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발달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분리와 독립이 필요하다는 분리개별화의 관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은 다른 차원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Kâğıtçıbaşı(1996, 2013)의 관점을 지지하는 바,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에 대한 부모-자녀의 지지적·상호협조적 상호작용이 자녀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율적이면서 관계적인’ 부모자녀관계가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침입성의 경우, 진로정체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직접 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 가족이 자신의 독립성을 방해하고 침입하는 것이 한국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의 간섭과 침입성이 진로발달을 저해하며, 그 영향력은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유효하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Dietrich & Kracke, 2009; Fan et al., 2014; Manzi et al., 2006).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정체감형성을 위한 부모의 진로개입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진로와 관련하여 보완합치와 조정합치를 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따라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경로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따라 진로상담적 개입이 세분화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합치과정은 상호

협조적 부모자녀관계와 독립적 부모자녀관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지 않았으며, 진로정체감과는 부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합치과정은 진로에 대한 자녀의 관심, 계획, 목표, 가치가 부모의 것과 유사하여 적극적인 합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진로정체감이 청소년기 적극적인 재구성 과정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에게 부여된 정체감의 재구성 없이 주요 타자의 가치와 기대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진로발달을 미성숙하다고 언급한 Kroger와 Marcia(2011)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며, 한국대학생들 역시 건강한 진로정체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구성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재구성 과정이란 무엇인가? 본 연구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요구를 수용하며, 자녀의 진로목표를 위해 필요한 도구적·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보완합치과정과 부모와 자녀가 상호협조적인 자기를 함께 재구성해나가며, 수동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정서적 교류와 상호반응성을 통해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는 조정합치과정이 주요한 매개변인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재구성은 자신의 주요 타자(부모)와 자녀가 보완합치와 조정합치의 과정을 통해 ‘상호재구성(interdependent-reconstruction)’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남과 다른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나가는 Erikson의 ‘자기재구성(self-reconstruction)’과는 구별된다. 특히 조정합치과정의 유의한 매개효과는 진로정체감의 상호재구성 과정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는 진로정체감의 혼란을 느끼는 시기이자, 진로정체감을 재구성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진로상담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자신들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자녀가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 걱정하기도 하고, 자녀의 진로목표가 부모의 것과 달라서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서구의 진로상담이론을 적용하는 상담자는 부모의 이런 걱정과 관심, 그리고 자녀의 진로에 개입하려는 부모의 시도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리개별화를 강조하는 상담개입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진로상담은 문화보편성과 문화특수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위의 예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녀가 부모에 동일시되도록 하는 것은 문화보편적으로 자녀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갈등하거나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협조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 및 초기성인기 내담자를 상담할 때 문화보편성과 문화특수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 그리고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매개변인인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은 진로에 대한 부모자녀상호작용을 반영하며, 관계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에서 진로와 관련한 상호협조적 자기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척도와 이론들을 토대로 척도들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다 타당한 도구의 개발을 통해 관계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에서 진로와 관련한 부모자녀 상호협조성을 밝혀내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교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의 문화적 배경이 결과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부자유친성정이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을 거쳐 진로정체감으로 가는 과정이나 조정합치의 과정을 문화특수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타 문화권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와 독립적 부모자녀관계에 포함된 하위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분석틀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해석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 및 연구에 기반하여 독립적 부모자녀관계(독립성과 자율성)와 상호협조적 부모자녀관계(부자유친성정과 권위적 효의식)를 대표하는 특성들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한국대학생들은 자율적이고 관계적인 부모자녀관계가 한국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독립성을 저해하고 간섭하거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이들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틀로 해석하

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들이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됨으로써 한국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부모의 자녀에게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부모와 자녀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나 안정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더 많은 환경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하여 경제상태를 공변인으로 삼아 상호협조적-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상태 이외의 여러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여 이들 지위에 따라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가속화되는 기술적 진보와 문화적 환경으로 대학생들의 진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로를 수정 혹은 전환하는 진로유연성을 갖는 것도 필요한 시기이다(Savickas, 2012). 진로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할 때 자신이 더 만족스럽고 의미를 느끼는지 등에 대해 알고 그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으며(Klaczynski & Lavalley, 2005), 전환기에 시기에 더욱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Mortimer, Zimmer-Gembeck, Holmes, & Shanahan, 2002). 몇몇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진로정체감과 진로유연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 및 검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유형화.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임, 김창대 (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 김영철, 양진희 (2014).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상. 아시아교육연구, 15(4), 81-107.
- 김은영 (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석 (2019).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이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99-118.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30-40.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6, 109-141.
-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자녀가 지각한 효도의 구성개념과 형성. 교육심리연구, 28(3), 421-454.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박현주, 김봉환 (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

- 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19-439.
- 방희정 (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41-65.
-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1), 263-288.
- 안미경, 유금란 (2013). 부모의 진로 및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9), 73-95.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엄은주, 박보경, 도현심, Nishiwaki, R. (2014). 학령 초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5(3), 93-118.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도.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장주, 최상진 (2003).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87-104.
-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 및 애착과 남녀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1), 41-59.
- 임수진 (2015).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49-363.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부자유친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Beyers, W., Goossens, L., Vansant, I., & Moors, E. (2003). A structural model of autonomy in middle and late adolescence: Connectedness, separation, detachment, and ag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351-365.
- Chen, S., Boucher, H., & Kraus, M. W. (2011). The relational self.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149-175).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 - 808.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 English, T., & Chen, S. (2007). Culture and self-concept stability: Consistency across and

- within contexts among Asi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3), 478-490.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 - 121
- Erikson, E. H. (1959).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mpany.
- Fan, W., Cheung, F. M., Leong, F. T. L., & Cheung, S. F. (2014). Contributions of family factors to career readiness: A cross-cultural comparis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 194-209.
- Fouad, N. A., & Kantamneni, N., Smothers, M. K., Chen, Y. L., Fitzpatrick, M., & Terry, S. (2008). Asian America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2, 43-59.
- Gavazzi, S. M., Reese, M. J., & Sabatelli, R. M. (1998). Conceptual development and empirical use of the Family Intrusiveness Scale. *Journal of Family Issues*, 19(1), 65-74.
- Grolnick, W. S., Deci, E. L., & Ryan, R. M. (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J. E. Grusec, & L. Kuczynski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pp. 135 - 161). New York: Wiley.
- Guan, Y., Wang, F., Liu, H., Ji, Y., Jia, X., Fang, Z., Li, Y., Hua, H., & Li, C. (2015).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A three wave investigation among Chinese under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 95-103.
- Hargrove, B. K., Creagh, M. G., & Burgess, B. L. (2002).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185-201.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âğitçibaşı, C. (2013). Adolescent autonomy-relatedness and the family in cultural context; What is optima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3(2), 223-235.
- Kâğitçibaşı, C. (1996). The autonomous-relational self: A new synthesis. *European Psychologist*, 1(3), 180-186.
- Kim, U.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laboration. In U. Kim, H. C. Triandis, Ç. Kâğitçibaşı, S-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19-40). Thousand Oak, CA: Sage.
- Kim, U., & Choi, I. J. (2001).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ature perso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Melbourne, Australia.
- Klaczynski, P. A., & Lavalley, K. L. (2005).

- Domain-specific identity, epistemic regulation, and intellectual ability as predictors of belief-biased reasoning: A dual-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2, 1 - 24.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Kroger, J. (2007). *Identity development: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Sage Publications.
- Kroger, J., & Marcia, J. E. (2011). The identity statuses: Origins,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31-53).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Leung, S. A., Hou, Z. J., Gati, I., & Li, X. (2011). Effects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cultural-values orient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1), 11-20.
- Leong, F. T. L., & Serafica, F. C. (1995). Career development of Asian Americans: A research area in search of good theory. In F. T. L. Leong (Ed.), *Career development and vocational behavior of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pp. 67-102). Hillsdale, NJ: Erlbaum.
- Lillevoll, K. R., Kroger, J., & Martinussen, M. (2013). Identity status and locus of control: A meta-analysis. *Identity*, 13(3), 253-265.
- Marcia, J. E. (1993a). The ego identity status approach to ego identity.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 3 - 21). New York: Springer-Verlag.
- Manzi, C., Regalia, C., Pelucchi, S., & Fincham, F. D. (2012). Documenting different domains of promotion of autonomy in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35(2), 289-298.
- Manzi, C., Regalia, C., Soenens, B., Fincham, D. F., & Scabini, E. (2011). *Disentangling different dimensions of intrusive parenting*.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Milan, Italy.
- Manzi, C., Vignoles, V. L., Regalia, C., & Scabini, E. (2006). Cohesion and enmeshment revisited: Differentiation, identity, and well being in two European cultur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3), 673-68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Meeus, W., Iedema, J., Maassen, G., & Engels, R. (2005). Separation - individuation revisited: On the interplay of parent - adolescent relations, identity and emotion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8(1), 89-106.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timer, J. T., Zimmer-Gembeck, M. J., Holmes, M., & Shanahan, M. J. (2002). The process of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Pattern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439 - 465.
- Restubog, S. L. D., Florentino, A. R., & Garcia, P. R. J. M. (2010). The mediating roles of

-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decid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ual support and persist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186-195.
- Ryeng, M. S., Kroger, J., & Martinussen, M. (2013). Identity status and authoritarianism: A meta-analysis. *Identity*, 13(3), 242-252.
-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 13-19.
- Sawitri, D. R., Creed, P. A., & Zimmer-Gembeck, M. J. (2013). The adolescent - 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2), 210-226.
- Sawitri, D. R., Creed, P. A., & Zimmer-Gembeck, M. J. (2014). Parental influences and adolescent career behaviours in a collectivist cultural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4(2), 161-180.
- Scabini, E., & Manzi, C. (2011). Family processes and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565-584). New York: Springer.
- Shea, M., Ma, P. W. W., & Yeh, C. J. (2007). Development of a culturally specific career exploration group for urban Chinese immigrant youth.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1), 62-73.
- Silk, J. S., Morris, A. S., Kanaya, T., & Steinberg, L. (2003).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granting: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or distinct constru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113-128.
-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11). Occupational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693-714). New York: Springer.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 - 1391.
- Tang, M., Fouad, N. A., & Smith, P. L. (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142-157.
- Turner, S. L., Alliman-Brissett, A., Lapan, R. T.,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5.
- Yeh, K-H., & Bedford, O. (2003). A test of the dual filial piety model.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215-228.
- Yeh, K. H., & Yang, Y. J. (2006). Construct validation of individuating and relating autonomy orientations in culturally Chinese adolescent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 148-160.
- Yeh, K. H., & Yang, Y. J. (2006). Construct validation of individuating and relating autonomy orientations in culturally Chinese adolescent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 148-160.
- Yeh, K. H., Yi, C. C., Tsao, W. C., & Wan, P. S. (2013). Filial piety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Taiwan,

- Hong Kong, and China. *International Sociology*, 28(3), 277-296.
- Zingaro, J. C. (1983). A family systems approach for the career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2, 24-27.
- 논문 투고일 : 2021. 07. 16  
1 차 심사일 : 2021. 07. 29  
게재 확정일 : 2021. 08. 23

## The Parent-adolescent Career Congruence Process as a Mediator between Independent vs Interdependent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Youngmi Sohn

Konyang University

Cheongyeul Park

Seoul Business School, aSS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adolescent career congruence process i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ty of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which kind of career congruence process mediates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terdependent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upport of emotional bond and filial piety) and the independent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upport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on career identity. Data of 509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and parallel multiple medi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the complementary and attunement congruence proces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career identity. Authoritative filial piety had a negative direct effect on career identity, but a positive indirect effect by mediating the complementary and attunement congruence process. The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both complementary and attunement congruence process fu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independent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ty. However, family intrusion had only a negative direct effect on career identity. On the other hand, the supplementary congruence process did not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etween all type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Also, the supplementary congruence process had a negative direct effect on career ident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culturally universal and culturally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along with the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areer identity,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complementary congruence, attunement congruence, supplementary congruence